

News

금융당국, 은행 점포폐쇄에 경고...윤석현 "책임있는 자세 필요·감독 강화"

디지털타임스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빠른 속도로 점포를 줄이고 있는 시중은행에 금융감독 당국이 경고장...점포폐쇄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점포폐쇄에 대한 사전보고 규제도 예상
은석현 금감원장, "은행 스스로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점포를 축소하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라임 충격' 비켜간 KB금융...실적 고공행진

매일경제

KB금융은 2분기에 지난 분기 대비 34.6% 증가한 9,81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경기 전망을 반영한 대손충당금은 약 2,060억원 적립
대형 금융지주사들이 라임 등 부실 사모펀드에 따른 부담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이 부담에서 자유로운 KB금융이 실적 1위를 탈환할 가능성이 제기

하나銀, 라임 100% 배상 결정 연장 요청

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의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하나은행은 다음 달 이사회에서 재논의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답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오는 24일 이사회를 앞둔 우리은행도 비슷한 결론을 낼 것이라 관측

차보험 시장에도 '공룡' 포털...손보 3사+네이버 vs 삼성화재

연합뉴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은 네이버파이낸셜 자회사 엔에프보험서비스(NF보험서비스)와 자동차보험 판매 수수료를 협의 중
현재 인터넷 판매 경로에서 삼성화재 다이렉트의 점유율은 50~60%...삼성화재는 네이버를 통한 판매에 부정적 입장

생보사 주택담보대출 시장 눈독...은행 수준으로 금리도 '뚝'

소비가 만드는 신문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생보사 6곳의 대출금리가 일제히 떨어져...저금리 상황에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보험사들 주택담보 시장 확대 겨냥
관계자, "신용대출보다 담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적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사가 은행보다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워 관심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무디스 "韓증권사 코로나 리스크 취약...한투증권 신용전망 '부정적'"

서울경제

무디스는 21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에 대한 신용등급 조정 검토를 마치고 한국투자증권의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조정...나머지 회사들 '안정적'
한국투자증권가 추진하고 있는 리스크 축소 조치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다는 판단...

'해외 주식' 덕 증권사 호실적 '기대감'...대체투자 부진 우려는 '여전'

인베스트조선

국내 증권사들은 이에 따른 '브로커리지' 반사효과를 기대하는 모습...올해 상반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외화증권 거래액은 1,424억달러...해외 주식 국내 주식보다 마진 4배 높아
다만 2분기부터 IB 부문에서의 해외 대체투자 관련 달 감소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실사가 어려운 만큼 해외 대체투자 감소의 영향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

낮아진 가입문턱·사모펀드 사태에 랩어카운트 가입고객 증가세 지속

아주경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일임형 랩어카운트 고객 수는 173만2252명으로 올해 들어서만 2만5436명 증가...5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준에 도달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태 등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불신에 낮아진 가입문턱 등이 영향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